

# 래몽래인

## KONEX [200350]

2020.06.05.

본 자료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지원사업(KONEX Research Project)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주)NICE 디앤비 김문일 연구원

### 기업정보(2020-05-27 기준)

대표자	김동래
설립일자	2007-03-02
상장일자	2014-12-24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영화, 비디오 물, 방송프로 그램 제작 및 배급업
주요제품	TV 드라마제작

### 시세정보(2020-05-27 기준)

현재주가	6,240 원
액면가	500 원
시가총액	265 억 원
총 발행주식수	4,254,674 주
52주 최고주가	6,900 원
최저주가	2,710 원
외국인지분율	0.0%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 5인	50.54%

## “신선한 아이디어와 흡인력 있는 스토리, 2020년 드라마 제작 편수 확대 예정”

### ■ 흥행작품의 IP를 바탕으로 글로벌 판권사업 추진

래몽래인(이하 동사)은 흥행에 성공하여 검증된 스토리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소설/웹소설의 IP 확보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OSMU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 및 중국 드라마의 판권가격 상승세에 비추어, 아시아 지역의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글로벌 판권사업 확대와 뉴미디어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라이선스 사업 등은 향후 동사의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20년 드라마 라인업 확대 예정

동사는 설립 이후 연평균 2개의 드라마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연내 총 6개의 드라마 제작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방영 예정인 ‘재벌집 막내아들’은 ‘문피아’에서 연재 1위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웹소설의 자체 IP를 확보해 진행하는 텐트폴(Tentpole)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휴먼메디컬 드라마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휴먼코미디 ‘산후조리원’, 블랙코미디 ‘좀비 탐정’, 정통 멜로 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 다양한 장르와 신선한 소재의 드라마 제작이 예정되어 있다.

###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OTT 시장 공략

동사는 지난해 위치웍스튜디오와 제작 중인 드라마 전편에 대한 시각특수효과(VFX)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드라마 제작 특성상 외주 비율이 높은 CG와 VFX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래몽래인이 보유 중인 원천 IP 기반에 위치웍스튜디오의 VFX 기술력 및 콘텐츠 밸류체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양사가 글로벌 OTT 시장 공략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기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 (억 원)	당기순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A	181.2	0.0	-82.6	-45.6	-102.1	-56.4	-856.5	-81.3	953.7	-5,039	588	-1.1	9.5
2018A	110.4	-39.1	-13.3	-12.0	12.7	11.5	43.6	17.3	151.4	629	1,443	8.9	3.9
2019A	200.0	81.2	12.9	6.5	14.7	7.4	15.9	8.9	78.8	339	2,136	16.5	2.6

# 래몽래인

## KONEX [200350]

2020.06.05.

본 자료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지원사업(KONEX Research Project)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 [기업개요]

2007년 3월 2일 [(J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12월 24일 코넥스시장에 신규 상장되었다. 동사는 TV 방송용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표작 ‘성균관 스캔들’, ‘엽기적인 그녀’, ‘야경꾼 일지’를 포함한 20여 편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하였다. 2020년에는 현재 제작 중인 ‘거짓말의 거짓말’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드라마 제작 라인업(Line-up)을 준비하고 있다. 동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중국 현지 콘텐츠 제작 및 판권 판매를 위한 (주)래몽래인씨앤씨(지분율 61.29%), 일본 드라마 수입 및 배급을 위한 래몽래인 Japan(지분율 100%), (유)야경꾼일지문화산업전문회사(지분율 100%)을 보유하고 있다. 지배기업은 (주)위지윅스튜디오로 지분 28.76%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동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드라마 제작 95.4%, 매니지먼트 4.6%이다.

### [주요 연혁(작품)]

‘07~‘08	‘09~‘10	‘11~‘12	‘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03 래몽래인 설립</li> <li>2008.02 KBS[상글파파는 열여 중]</li> <li>2008.10 KBS[내사랑 금자옥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04 KBS[그저 바라보다가]</li> <li>2009.09 벤처기업 등록</li> <li>2010.08[성균관스캔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03 벤처기업협회 수출신도기업 선정</li> <li>2011.05[성균관스캔들 더무비] 일본 상영</li> <li>2011.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li> <li>2012.07 VS조선[한반도] 창사특집</li> <li>2012.09 KBS[성균관스캔들 더무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02 KBS[광고천재 이태백]</li> <li>2013.07 EDEN 일본 데뷔, 첫 싱글앨범</li> <li>2014.04 EDEN 두번째 싱글앨범, 오리콘차트 100위 진입</li> <li>2014.08 MBC[야경꾼일지]</li> <li>2014.12 코넥스 상장</li> </ul>
2015	2016	2017	‘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03 [야경꾼일지] 일본 프로모션 콘서트</li> <li>2015.04 래몽래인 CNC 설립</li> <li>2015.07 [심야식당]</li> <li>2015.08 KBS[어쌔블리]</li> <li>2015.10 SBS[별난며느리]</li> <li>2015.12 SBS[마녀의 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01 [엽기적인 그녀] 투자유치/사전제작</li> <li>2016.06 KBS[뉴티풀마인드]</li> <li>2016.11 중국 [수영선생] 협작제작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05 SBS[엽기적인 그녀]</li> <li>2017.11 제프버넷 내한공연 주관</li> <li>2017.11 펜타곤 일본 팬미팅 주관</li> <li>2017.11 MBC[의문의 일승]</li> <li>2017.11 MBC[전생에 웬수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09 중국 망고TV[수영선생]</li> <li>2018.10 네이버 웹드라마 [고벤저스] 제작완료</li> <li>2019.03 MBC[더 뱅커]</li> <li>2019.05 이규한 일본 동경 팬미팅</li> <li>2019.10 MBC[어쩌다 발견한 하루]</li> </ul>



## 다양한 장르의 우수 작가진 및 내부 기획인력

드라마란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를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말한다. 드라마 작가는 인물, 사건, 환경을 구성하여 스토리를 창작하고, 이를 플롯(Plot) 형태로 구성한다. 플롯으로 짜인 스토리를 분해하여 시퀀스(Sequence)로 나누고, 다시 씬(Scene)으로 세분화하여 극의 전개 순서대로 배열한다. 대본 작성과 필요에 따라 촬영장소 답사, 배역 캐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스토리 기획은 이와 같이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에 해당하는 제작 초반부 작가에 의해 진행되며, 이는 드라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수한 작가의 역량은 흥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사 역시 다양한 장르의 우수 작가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는 최고시청률 49.4%를 기록한 김사경 작가(KBS '하나뿐인 내편', '불어라 미풍아'), 김태희 작가(tvN '60일, 지정생존자', KBS '대왕세종', '성균관 스캔들'), 이현주 작가(SBS '의문의 일승', MBC '오만과 편견', KBS '학교 2013'), 김지은 작가(SBS '청담동 스캔들', MBC '전생에 웬수들'), 박지현 작가(MBC '이브의 모든 것', '행복을 주는 사람'), 문지영 작가(tvN '후아유', SBS '스타일')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 그림 1>> 드라마 제작 과정



자료: 래몽래인

최근 드라마 시장에는 신선한 소재와 색다른 구성,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신인작가의 작품 흥행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토브리그(이신화 작가)', '하이에나(김루리 작가)', '굿 캐스팅(박지하 작가)'이 그 예이다. 또한 신인작가는 유명 작가대비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작품 흥행 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사는 개별 1:1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신인작가 인턴쉽, 신인작가 기획 및 개발 지원 시스템 등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그림 2>> 동사의 작가진



자료: 래몽래인

## 팩션 사극 '성균관 스캔들', 동사의 대표 흥행작

역사드라마는 2000년대 이후 ‘퓨전(Fusion)’과 ‘팩션(Faction)’, ‘픽션(Fiction)’ 등의 수식어로 탈주와 변형을 지속하면서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성균관 스캔들’ 역시 2010년 제작, 방영된 팩션 사극으로,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류드라마 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한 동사의 대표 흥행작이다. ‘성균관 스캔들’은 조선시대 대학인 성균관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청춘 유생들의 로맨스를 그려냈으며,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에 대한 재현보다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상상력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 전개로 재미를 극대화했다. 초반부 신인급 연기자들을 캐스팅해 논란이 있었으나, 독특한 컨셉과 탄탄한 이야기 구성으로 화제성을 이끌어냈고, 신인급 배우들의 안정적이고 개성 있는 연기 역시 호평을 받아 30대~40대 여성 시청자에게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아시아, 남미를 비롯한 해외 18개국에 수출되어 누적 판권 판매대금 약 60억 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림 3>> 동사의 대표작 '성균관 스캔들'**



### KBS 월화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 2010.08.30~2010.11.02 (20부작)

출연: 박유천, 박민영, 송중기, 유아인

연출: 김원석, 황인혁

극본: 김태희

자료: 래몽래인

## 흥행작품의 IP를 바탕으로 글로벌 판권사업 추진

작품의 개수가 누적될수록 제작된 드라마의 IP(Intellectual Property)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이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동사는 흥행에 성공하여 검증된 스토리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소설/웹소설의 IP 확보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OSMU 전략은 콘텐츠 제작 사업에 있어 주요 레버리지 요소이다. ‘성균관 스캔들’은 작가 정은궐이 집필한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2012년 뉴욕 TV페스티벌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방영된 ‘엽기적인 그녀’ 역시 소설 출시 이후 영화로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IP로 제작되었다. 검증된 IP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드라마는 시청률 확보가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절감되며, 판권 판매자 입장에서도 부가적인 유통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종 장르간의 재제작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소설이 원천 장르(Source genre)의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급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장 진입 시 가치가 떨어지는 문화적 할인 현상이 적은 중국, 일본 시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드라마 시장은 최근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사는 중국 현지 콘텐츠 제작 및 판권 판매를 위한 래몽래인씨앤씨, 일본 드라마 수입 및 배급을 위한 래몽래인 Japan을 자회사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출 확대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 및 중국 드라마의 판권가격 상승세에 비추어, 아시아 지역의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글로벌 판권사업, 디지털 라이선스 사업은 향후 동사의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gt;&gt; 한국 드라마 회당 판권 가격 상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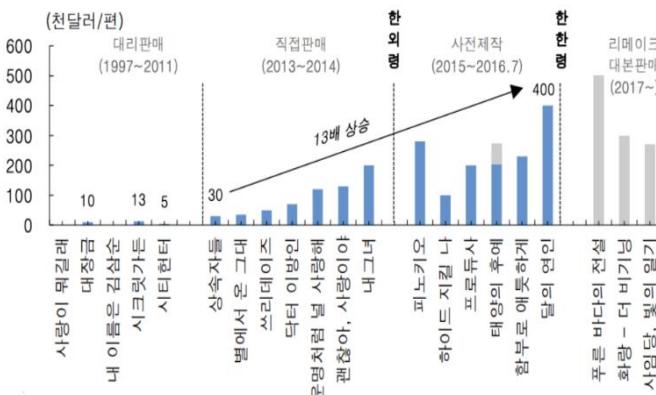


그림 5&gt;&gt; 글로벌형 드라마 판로확대



자료: PwC, 한국투자증권, 래몽래인

자료: 래몽래인

## 2020년 드라마 라인업 본격 확대 예정

동사는 2008년 ‘싱글파파는 열애 중’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 1개가량의 드라마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 드라마 제작 인프라를 확대하여 2019년까지 총 20개가량의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2019년에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 ‘더 뱅커’를 제작 및 방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6개의 드라마 제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6&gt;&gt; 2020년 드라마 제작 라인업



자료: 래몽래인

현재 촬영 중인 서스펜스 멜로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은 ‘청담동 스캔들’과 ‘전생에 웬수들’로 잘 알려진 김지은 작가의 작품이다. 하반기 방영 예정인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연재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다. 이 외에도 김현아 작가의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휴먼메디컬 드라마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여성들의 리얼 스토리를 그린 휴먼코미디 ‘산후조리원’, 블랙코미디 ‘좀비 탐정’, 경통 멜로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 다양한 장르와 신선한 소재의 드라마 제작이 예정되어 기대를 모은다.

## 드라마를 중심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 시장규모는 증가 추세

동사는 방송사와의 계약에 의해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외주제작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해당한다. 1991년 방송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외주제작 제도는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영상독립제작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영상독립제작사들의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없이는 방송 편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이 성장하였다. 특히 방송영상제작 산업 중에서도 드라마 산업은 외주제작 비율이 정부의 주도를 떠나 방송사의 자체 요구에 의해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9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2018년 기준 총 매출액은 2조 4,565억 원으로 2009년 7,962억 원에서 연평균 약 13.4% 성장한 수치이다.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4,476명 증가하여 12,99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체 수 역시 728개로 전년대비 97개 증가하는 등 외형적 시장규모가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2022년까지 매출 153.8조 원, 수출 134.2억 달러, 고용 70만 명, 1000억 원 이상 기업 2,000개, 실감콘텐츠 매출 11.7조 원 규모로 키우는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콘텐츠 산업을 정책적으로도 육성, 지원하고 있어 향후 방송영상 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7&gt;&gt;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총 매출액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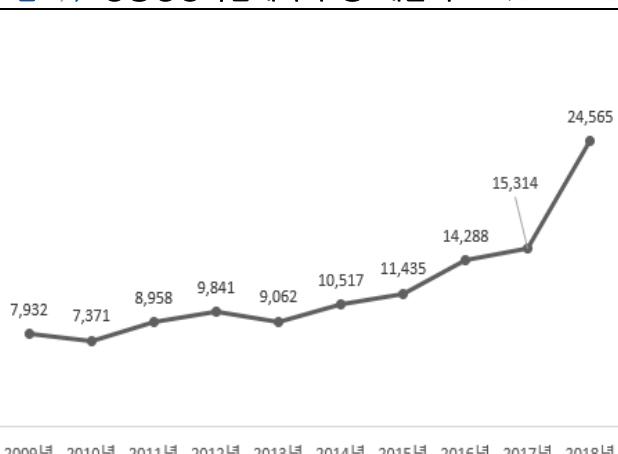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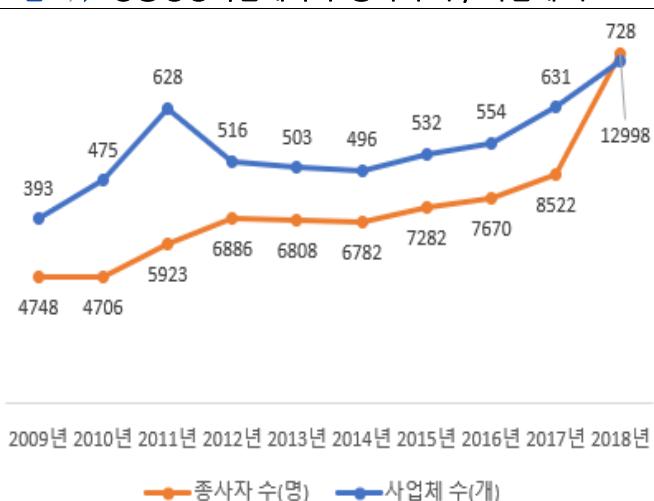


그림 8&gt;&gt;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2019), 나이스디엔비

다만, 2018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제작사는 49개로 전체 728개의 6.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발생하는 매출은 1조 6,414억 원으로 전체 매출(2조 4,565억 원)의 66.8%를 차지한다. 또한 728개 제작사 중 64.8%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전체 제작사의 고른 발전이 아닌 소수 대형 제작사의 발전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아지고, 소규모 제작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2019)).

한편, 2018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총 매출액 중 프로그램 제작/납품 관련 매출액은 1조 9,084억 원으로 집계되며, 이를 다시 제작 장르별로 살펴보면, 동사의 주 영위 업종인 드라마 제작 비율이 1조 1,814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48.1%)을 차지했다. 그 외 오락/예능(11.2%), 교양/시사(7.5%), 다큐(4.9%)가 뒤를 잇고 있다.

**표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상물 제작 장르별 매출액 현황**

구분	2018	
	비율(%)	금액(백만 원)
총 매출액	100.0	2,456,536
프로그램 제작/납품 관련 매출액	77.7	1,908,449
드라마	48.1	1,181,396
다큐	4.9	121,555
애니메이션/만화	1.8	43,889
영화	0.1	2,002
음악	0.0	498
오락/예능	11.2	274,334
교육/학습	0.5	11,807
교양/시사	7.5	184,043
뉴스/보도	0.3	7,747
스포츠/레저	0.3	6,684
기타	3.0	74,494
프로그램 제작/납품 이외의 매출액	22.3	548,087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2019), 나이스디앤비

##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판로 확대

동사 콘텐츠의 주 수요처는 국내의 경우 지상파 3사 및 종합편성채널, tvN 등이 있다. 동사는 기존 지상파 3사를 통한 드라마 제작 및 공급 이외에 국내 케이블 방송망을 통한 드라마 제작 및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웹드라마와 같은 신규 플랫폼을 활용한 드라마 제작, 해외 사업 확대, 공연 사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동사는 2018년 8월 중국 현지에서 공동으로 제작된 ‘뷰티풀 보이즈’를 방영하였다. 이는 한한령 이슈로 인해 한류 콘텐츠 판권 수출이 막힌 중국 드라마 시장에 대한 차선책으로써 현지 공동 제작을 진행한 것이다. 동사는 자회사인 래몽래인씨앤씨와 래몽래인 Japan을 통해 중국, 일본 현지 콘텐츠 제작 및 판권 판매, 수입 및 배급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류 스타의 해외 프로모션, 공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 펜타곤 동경공연, 2018년 BAP 동경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의 주연 배우 주원의 도쿄 팬사인

회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도쿄돔 공연 등 수익성 위주의 공연 외에도 동사의 매니지먼트 소속 배우 팬사인회, 드라마 OST 공연 등 콘텐츠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COVID-19의 여파로 국가간 왕래 및 다수의 관객을 동원하는 콘서트 등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COVID-19와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 그림 9>> 동사의 공연 사업



자료: 래동래인

동사는 2018년 10월 네이버 웹드라마 ‘고벤져스’를 제작, 방영하였고, 현재 웹소설 기반의 웹드라마 ‘미치도록 너만을’ 제작을 계획 중이다. 웹드라마는 웹이나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회당 15분가량의 짧은 드라마를 말한다. 웹드라마는 스마트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젊은 층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취향을 고려해 소재를 선택한다. 웹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지상파 미니시리즈에 비해 저렴한 제작비를 투입하면서도 SNS 등을 통해 높은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IPTV와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본방사수’보다는 원활 때 찾아서 보는 ‘이용자’ 중심으로 드라마 시청 패턴이 변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드라마 편성, 제작 그리고 내용 분석). 웹드라마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사 역시 뉴미디어(New media) 플랫폼과 연계한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OTT 시장 공략

최근 동사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이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컬으며,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 (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OTT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 속도가 보장돼야 동영상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로 보는 IT, 권혜미)

## 그림 10&gt;&gt; OTT 서비스 개념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와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가 OTT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며, 다양한 형태의 OTT 서비스의 급성장은 방송 시장 경쟁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넷플릭스는 OTT의 대표주자로서, 신규 드라마 제작에 적극 투자하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 공급 편수를 늘렸고, 자체 제작 드라마 ‘킹덤’을 발표했다. 한편, 국내 지상파 3사 콘텐츠 연합 플랫폼 푹(POOQ)은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옥수수(okusu)를 결합한 통합 OTT 플랫폼 웨이브(wavve)를 출시하는 등 지상파, 케이블채널, 콘텐츠 제작사 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은 드라마 콘텐츠의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시스코(Cisco)는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Visual Networking Index, VNI) 보고서에서 글로벌 IP 트래픽이 2017년 대비 2022년 3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IP 트래픽 중 영상 트래픽 비중이 약 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기존 방송 플랫폼과 신 플랫폼간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멀티플랫폼화에 의한 수요 파편화, 기존 수익모델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의 위기요인과 콘텐츠 시청방식의 다양화, 새로운 광고 수익모델 창출, 콘텐츠 확대 등의 기회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1&gt;&gt; OTT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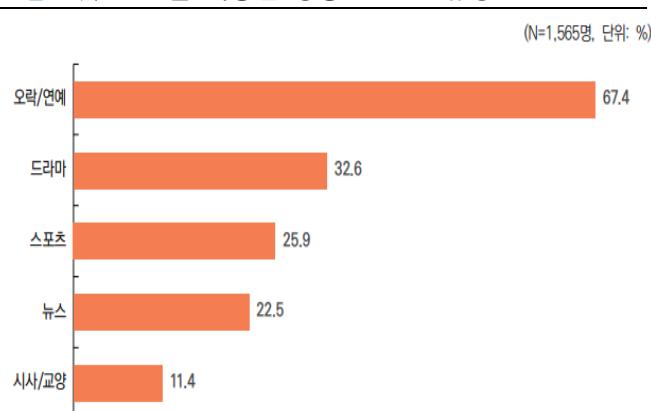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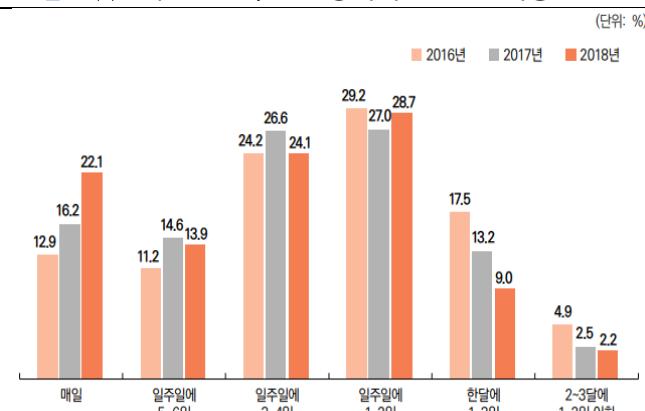


그림12&gt;&gt;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OTT 이용 빈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8)

동사는 지난해 위치워스튜디오와 상반기 방영 예정인 ‘거짓말의 거짓말’을 포함하여 제작 중인 드라마 전편에 대한 시각특수효과(Visual effects, VFX)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치워스튜디오는 뉴미디어 콘텐츠와 VFX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미국 월트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유일한 한국 공식 협력사로 선정된 바 있다. 드라마 제작 특성상 외주 비율이 높은 CG(Computer Graphics)와 VFX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사는 위치워스튜디오와 함께 드라마 기획부터 제작, 후반 작업(포스트 프로덕션, Post-production)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5G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실감영상 콘텐츠,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콘텐츠 제작 사업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래몽래인이 보유 중인 원천 IP 기반에 위치워스튜디오가 구축한 콘텐츠 밸류체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OTT 시장 공략을 위한 양사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그림 13&gt;&gt; 밸류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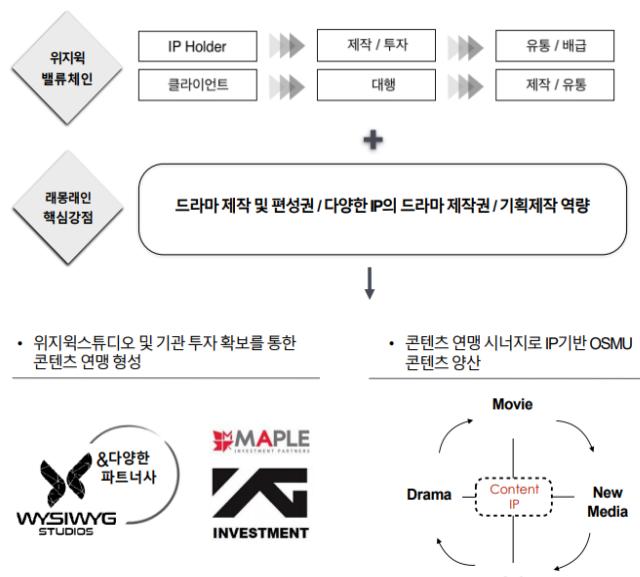


그림 14&gt;&gt; 플랫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자료: 래몽래인

## 2019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산업 특성상 큰 매출 변동성

동사는 2007년 3월 설립되어 방송 드라마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매출액은 200억 원(+81.2%, YoY), 영업이익 12.9억 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4.7억 원(+15.6%, YoY)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대비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 감소를 통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하였다.

표 2&gt;&gt; 동사의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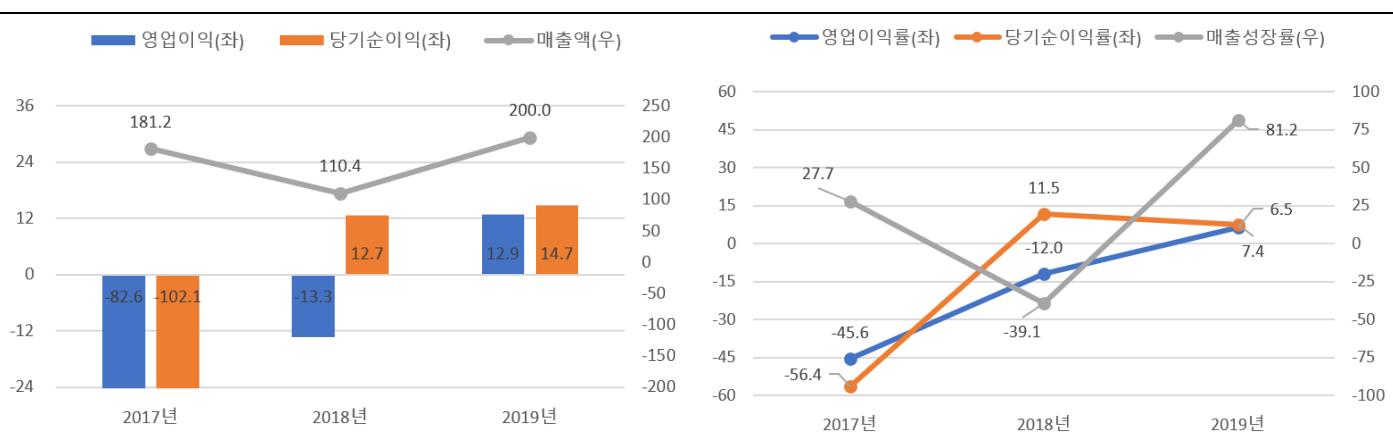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출액	181.2	100.0	110.4	100.0	200.0	100.0
매출원가	232.0	128.0	96.3	87.2	174.8	87.4
매출총이익	-50.7	-28.0	14.1	12.8	25.2	12.6
판관비	31.9	17.6	27.4	24.8	12.3	6.1
영업이익	-82.6	-45.6	-13.3	-12.0	12.9	6.5
영업외수익	0.3	0.2	36.4	32.9	8.4	4.2
영업외비용	22.2	12.3	6.0	5.5	6.6	3.3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04.6	-57.7	17.1	15.5	14.7	7.4
법인세비용	-2.4	0.0	4.3	3.9	0.0	0.0
당기순이익	-102.1	-56.4	12.7	11.5	14.7	7.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 나이스디앤비

그림 15&gt;&gt; 동사 연간 요약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단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나이스디앤비

동사의 매출 구조는 드라마 제작 부문이 95.4%, 매니지먼트 사업 부문이 4.6%로 드라마 제작 부문이 절대적이며, 드라마 제작 부문의 경우 드라마 외주제작 수입이 93%, 방송사와의 협의 하에 일부 콘텐츠의 저작권의 해외시장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부가수익 7%로 구성된다. 2019년 동사는 MBC의 ‘더 뱅커’와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제작하는 등 연평균 약 2개의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16년 이후 외주제작 비율의 하락세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동사는 흥행확률이 높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 김태희 작가(tvN ‘60일, 지정생존자’, KBS ‘대왕세종’, ‘성균관 스캔들’), 이현주 작가(SBS ‘의문의 일승’, MBC ‘오만과 편견’, KBS ‘학교2013’), 김지은 작가(SBS ‘청담동 스캔들’, MBS ‘전생에 웬수들’), 박지현 작가(MBC ‘이브의 모든

것’, ‘행복을 주는 사람’), 문지영 작가(tvN ‘후아유’, SBS ‘스타일’) 등의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을 진행 중에 있는 점은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전년대비 125.8% 증가한 16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채 총계는 전년대비 65.2% 증가한 73.2억 원을 기록하였다. 자본 총계는 전년대비 217.4% 증가한 92.8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gt; 동사의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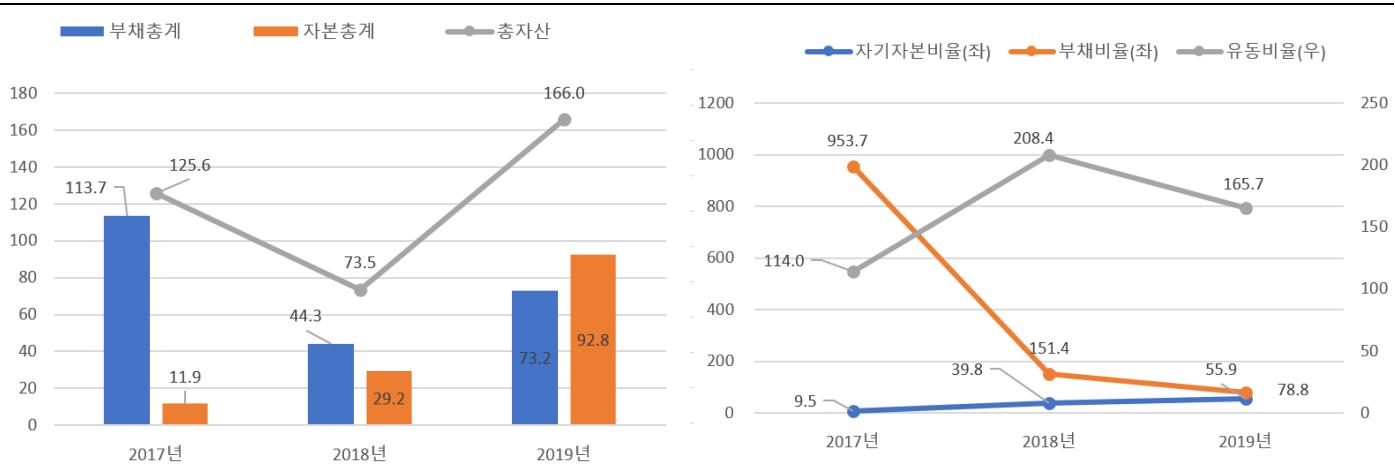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104.9	83.5	62.5	85.0	116.6	70.2
비유동자산	20.8	16.5	11.0	15.0	49.4	29.8
<b>자산총계</b>	<b>125.6</b>	<b>100.0</b>	<b>73.5</b>	<b>100.0</b>	<b>166.0</b>	<b>100.0</b>
유동부채	92.0	73.2	30.0	40.8	70.4	42.4
비유동부채	21.7	17.3	14.3	19.4	2.8	1.7
<b>부채총계</b>	<b>113.7</b>	<b>90.5</b>	<b>44.3</b>	<b>60.2</b>	<b>73.2</b>	<b>44.1</b>
자본금	9.4	7.5	9.7	13.2	15.9	9.6
자본잉여금	176.6	140.6	182.6	248.3	226.3	136.3
자본조정	7.2	5.8	5.8	7.9	4.7	2.8
결손금	182.0	144.8	169.2	230.1	154.5	93.1
<b>자본총계</b>	<b>11.9</b>	<b>9.5</b>	<b>29.2</b>	<b>39.8</b>	<b>92.8</b>	<b>55.9</b>
<b>자본과 부채총계</b>	<b>125.6</b>	<b>100.0</b>	<b>73.5</b>	<b>100.0</b>	<b>166.0</b>	<b>100.0</b>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 나이스디앤비

그림 16&gt;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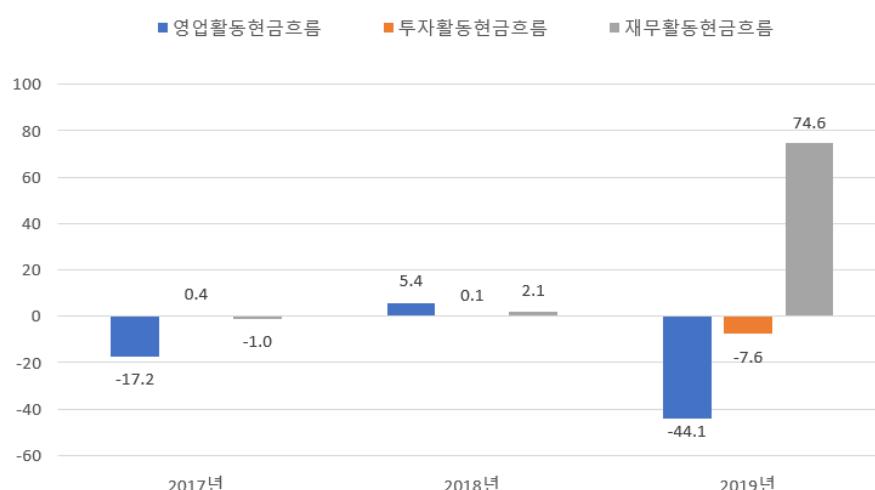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 나이스디앤비

그림 17&gt;&gt;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나이스디앤비

동사의 최근 3개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의 현금 전환율을 고려하면 이익의 질 역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비중이 약 5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채권회수관리에도 합리적인 주의를 요한다고 보여 현금흐름 개선에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방송 프로그램 산업의 수요 변동은 계절 및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적 상관관계보다는 사회 분위기와 기호 변화에 맞추어 소재를 선택하거나 흐름에 편승하는 소재적, 기획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개별 콘텐츠를 외주제작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을 편성 받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때문에 매출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동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드라마 제작이 95.4%를 차지해 어느 정도의 매출 및 이익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장 및 산업의 위협 요인에 대응하여 검증된 유명 작가와의 전속계약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며, 콘텐츠 저작권의 확보 및 공유를 바탕으로 해외판매를 통한 부가수익 확보 등이 현실화된다면, 동사의 향후 매출 및 수익 전망은 우상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체크포인트]

- ✓ 동사는 지난해 시각특수효과 전문기업인 위지윅스튜디오와 동사가 출자한 펀드 등으로부터의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운용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발판삼아 동사는 2021년까지 총 11개의 드라마 제작 라인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형 확대와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연내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로 IBK 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검토 중에 있다.

## [용어설명]

- ✓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사전 제작 단계로, 작품 선택 및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준비, 인물 캐스팅, 제작 방법 등 영상물이 완성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 ✓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후반 작업 단계로, 편집과 컴퓨터 그래픽작업 등 촬영된 필름을 바탕으로 완전한 한편의 영상물이 나올 수 있게 새 옷을 입히는 과정
- ✓ **팩션(Faction):**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써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문화예술 장르
- ✓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하여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 ✓ **IP(Intellectual Property):**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체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 ✓ **뉴미디어(New media):** 신문, 잡지, TV 등 기존의 미디어에 얹매이지 않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달매체
- ✓ **한한령:**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
- ✓ **실감영상 콘텐츠:** ICT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하는 영상 콘텐츠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작성기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